



맑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들의 맑은 노력

맑음

VOL. 17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2020년 상반기 소식지
‘맑음’



목차

04 인사말 인천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장정혁 소장

05 기획기사 만18세 청소년 선거시대, 그 의미와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선임연구위원
 청소년유권자 소감문

12 이증인 재단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인터뷰
 -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P.O.T 18기 강수진 위원장
 - 중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꿈다비 이모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은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1996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가톨릭정신으로 아동청소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호, 상담, 활동 등의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며 교회 안 청소년과 더불어 교회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사회복음화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 맑음뉴스 코로나19에 함께 맞서는 우리
- 재단 및 운영시설 주요소식

24 후원안내 후원회원님께 알려드려요!

26 동행명단 청소년과의 아름다운 동행

통 권 | 제17호

발 행 일 | 2020. 7.

발 행 처 |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발 행 안 | 이용권

기획편집 | 재단 사무처

주 소 |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가톨릭청소년센터 4층

대표전화 | 032-766-1318, 1398

후원전화 | 032-766-7942

홈페이지 | www.yism.or.kr

이메일 | youth@yism.or.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ayism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전례가 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 속에 지내게 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을 비롯한 의인들의 모습을 보며 숙연해지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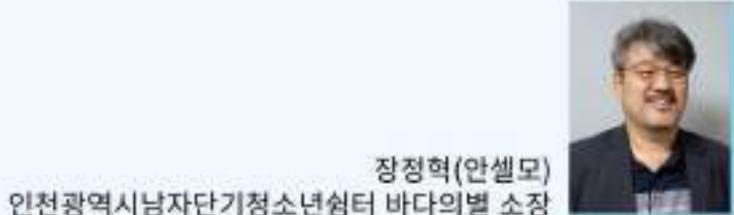
가톨릭교회와 청소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 특별히 가장 소외된 이들을 찾아 나서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여 년 전 인천교구는 2000년대를 맞이하는 교회의 구체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시노드를 열었습니다. 그 열매 중 하나로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을 세워 교회 안의 주일학교와 청소년사목을 넘어서 세상의 청소년들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신부님들과 청소년지도자 선생님들이 ‘활동’, ‘상담’, ‘보호’ 3개의 분야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존엄과 권익,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기청소년을 돌보는 일은 그중 가장 우선적인 일로 교황님의 권고에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안과 밖 그리고 많은 문제들

저희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학교밖청소년’, ‘가정밖청소년’으로 불립니다. 마치 그들이 잘못해서 있어야 할 ‘안’에서 ‘밖’으로 이탈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부모의 이혼과 가정 해체, 방임과 폭력 등 가정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렇게 지켜주고 보살펴 줄 어른이 없었던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가출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쉼과 회복,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을 청소년쉼터라고 합니다. 전국 최우수 쉼터 중 하나인 저희 쉼터는 8년째 2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청소년들은 더 이상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안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장정혁(안셀모)

인천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바다의별 소장

강점 관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최근 떠오르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강점관점 모델이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를 독특한 존재로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클라이언트의 결정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실현해 나가도록 돋는 관점'입니다. 기존의 병리적 관점에서는 원인을 찾고 단점과 문제점을 계속 찾아나갔다면 강점관점은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하고 그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해결해나가는 것입니다.

가능성 그 하나만으로도

그러나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금방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변화와 성장도 쉽지 않습니다. 주저앉은 청소년들을 일으키고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안내해 주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들이 삶의 주체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정문제로 초등학교조차 다니지 못했던 청소년 세 명이 열심히 공부하여 초·중·고 검정고시를 연속적으로 합격하였으며 마침내 고졸 학력을 취득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성실한 노력 뒤에는 교사와 학원 강사 등으로 이루어진 천사 같은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는 걸 체험한 아이들은 새로운 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다며 또 새롭게 공부를 시작합니다.

후원회원님들의 정성과 관심 덕분에
작은 가능성들이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획기사

만 18세 청소년 선거시대, 그 의미와 과제

지난 2005년 20세에서 19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이후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다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만 18세인 고3 학생들은 교육감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당 가입도 가능해 일부 18세 청소년들은 연초 정의당에 가입하기도 했다. 지난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9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물론, 2002년 4월 16일 이후 출생자들은 투표권이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이고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이기에, 만 18세 청소년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즉 10대 국회의원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다. 핀란드의 경우, 18세 이상의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자유롭게 출마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때문인지 지난해 12월 선출된 핀란드 총리는 34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선거연령을 현행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감선거의 경우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 16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먼저, 우리 사회도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미숙한 존재가 아닌 **정치적 시민이나 권리의 주체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국가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참고로 이웃 일본의 경우도 201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한 바 있다. 선거연령 하향의 또 다른 의미는 **청소년의 주장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사실 이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나 주장은 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즉 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청소년보다는 노인들의 문제나 복지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썼고 투자를 하였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청소년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일부 후보들은 청소년 관련 정책공약을 내세우며 청소년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이 처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소년 관련 공약도 매우 빈약했다. 오히려 청년 관련 공약들은 많이 넘친 것 같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했을까? 교복 생산업체인 형지엘리트가 10대 청소년 4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국회의원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 지역을 위해 일해 온 사람(28%), 소통을 잘 하는 사람(22%),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19%),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17%), 전문성을 갖춘 사람(8%) 순으로 답하였다(김수진, 2020.3.17.). **전문성보다는 소통능력이나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비리, 횡령 등 범죄에 연루돼 뉴스에 등장하는 모습이 31%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끼리 헐뜯고 욕하는 모습이 19%로 뒤를 이었다. 즉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바라는 공약으로는 소년법 폐지가 26%로 가장 높았고, 대학까지의 무상교육과 저 소득층 장학금 지원(19%), 대학입시제도 개편(18%) 순이었다.

그렇다면 18세 선거권 이후 우리 사회는 향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필자는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이 무엇보다도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이번 선거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고3의 경우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고 5월 20일부터 등교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할 여유가 없었다. 꼭 선거 시기가 닥쳐서 선거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평소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선거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가령, 사회 교과목의 경우 정치 참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때 선거의 의미나 역사, 선거 절차 등을 상세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서 직접 지역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약을 만드는 과정도 체험해볼 수 있으리라 본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는 곧 투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토론의 활성화도 매우 필요하다. 현재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정치적인 지식을 습득하기에 바쁘다. 따라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해 상호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학교 안에서 쉽사리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토론 과정 참여는 정치 참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공공의 이슈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등에 관해 충분히 숙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자신과 다른 의견일지라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는 개방적, 관용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사실, 많은 서구 사회국가들이 젊은 층의 낮은 투표율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에도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10대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려면 정치인들이 먼저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삶과 고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여러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청소년들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다. 만 18세 선거권 이후 이제는 정치인들이 청소년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다.



참고문헌

김수진 (2020.3.17.), 청소년 “지역위해 일해 온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국회의원수는 줄여야” 예듀동아.
http://cm.lawissue.co.kr/view.php?ud=202003171255024672204ead0791_12

우리도 당당히 목소리를 내었어요!



올해부터 선거 가능 나이가 만 18세로 하향되며 고등학교 3학년인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선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투표를 치른 우리 청소년유권자들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생애 첫 투표

처음으로 책임감 가득한 투표를 하였다. 물론 지금까지 행사한 투표에 책임감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투표는 학급이나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치회의에서의 투표를 넘어 자그마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처음 하는 것이기에,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투표권에 대하여 어른들은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주변에서조차 "부모님이 찍으라는 사람 찍어라.", "청소년인데 무슨 투표냐.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 등의 반응이었다. 과연 청소년이라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투표를 할까? 물론 아직 배울 게 많은 나이인 것은 맞지만, 청소년 또한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만 하여도 후보와 정당의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내 한 표에 신중을 기하였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맞이할 텐데, 이때에도 청소년들이 한 표 한 표에 책임과 무게를 느끼며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윤서 / 고등학교 3학년
(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청소년운영위원회 12기 위원장

스무 살의 첫 투표

성인이 된지 벌써 반년이나 지났으나, 내 스스로 성인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 그러나 4월 선거를 했을 때는 '이제 진짜 성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편으로 온 선거 홍보물을 보며 아버지와 함께 후보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어른들의 세계로 한 발자국 내디딘 느낌이었다. 투표를 하며 느낀 점은 투표는 단순하게 자신의 의견만을 행사하는 행위가 아닌 그 의견에 대한 책임 역시 내가 져야 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투표소 도장의 무게 또한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올바른 선택을 위해 앞으로도 선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올해부터 선거 가능 나이가 만 18세로 하향되며, 청소년들 또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나는 스무살에 선거권을 가졌으나, 청소년기 때 경험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에게도 주체적인 의사결정의 권한이 주어지며 어쩌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의견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느껴졌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많은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천지현 / 대학교 1학년
 (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청소년운영위원회 12기 운영위원

청소년선거시대를 맞아,
 우리 청소년들이 정치에 올바로
 참여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또한
 함께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19 방역강화 조치로 청소년들이 이전과 같은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활동을 이어가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 <이증人> 코너는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과 함께 해 주시는 모든분(후원회원, 직원, 청소년 등)들의 이야기를 담는 곳입니다!



강수진 위원장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P.O.T 18기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강수진입니다. 현재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P.O.T 18기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공간인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장 기둥이 되는 조직이라 생각하는데요. 말만 주인이 아닌 수련관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청소년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안하는 청소년 참여조직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제가 속해 있는 청소년수련관 외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련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답니다.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름인 'P.O.T'은 어떤 의미인가요?

P.O.T는 'Power Of Teenager'의 약자로, 번역하면 '십대들의 힘'인데요, 십 대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서로 협동하여 하나로 이끌어나가는 과정에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매달 정기회의를 진행하는데, 2월까지 대면으로 하던 회의를 현재는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으로 미뤄본다면, 이미 친구들과 만나서 정기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다녀오고 발대식도 진행하며 보람찬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면으로 회의를 못 하는 대신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새로운 경험도 하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18기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억에 남는 일이 좀 많은데요.^^

우선 면접 때 청소년운영위원회 담당 선생님의 오리엔테이션 후 그룹면접을 하며 다른 친구들과 생각을 나눈 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쓰는 의료진분들과 관계자분들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미추홀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지목을 받아 저희 'P.O.T' 친구들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청운위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모아서 응원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18기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운영위원회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 사태가 가라앉고 진정이 되면 친목도 모 겸 세부활동 계획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 기획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기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와의 교류활동도 활발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또 희망사항으로는 작년에 수련관 내 다른 조직들과 많이 친밀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다른 조직이랑 친해질 수 있도록 서로 다양한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참여조직 연합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인 활동을 앞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위원 친구들과 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P.O.T 18기 운영위원들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진행하던 방식과 많이 달라지고 우리가 함께 하는 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생겼지만,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노력해서 이겨냈으면 좋겠어! 또 이런 현상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깐!

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모르는 친구들아~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해보면 어떨까 해! 그리고 수련관이나 우리 주변 많은 곳에 청소년기에 만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활동들을 많으니,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 또한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고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자!



▲ '덕분에 챌린지' SNS 게재 화면

▲ 화상회의 장면

꿈드림이모 꿈다비 (연락 좀 주라)



**인생은 한 번!
내 노래는 두 번!
꿈드림은 여러 번~!**

**꿈다비 이모
중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둘째 이모 김다비! 요즘 텔레비전을 둘면 많이 보이시죠?
개그맨 유재석이 유산슬이라는 부캐릭터로 활동한 것
처럼, 개그맨 김신영이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만든 부캐
릭터로 둘째 이모 김다비의 인기가 상당한데요.
둘째 이모 김다비를 닮은, 닮아도 너무 닮은 꿈드림이
모 꿈다비 이모가 우리 재단에 있다고 하여 찾아가 보
았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또는 유튜브 검색을 통해
꿈다비 이모님의 영상을 만나보세요!



어떤 취지에서 꿈다비 이모 콘셉트로 영상을 찍게 되었나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인해 현재 휴관 중인 센터에 내방하지 못하는 꿈드림 청소년들을 위하여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휴관 이후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이벤트를 열때마다 신나게 참여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친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재밌게 뮤직비디오로 찍어보자!'하며 현재 인기 높은 김다비 이모 콘셉트로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모님이 만난 꿈드림 청소년 중 기억에 남는 청소년이 있을까요?

손을 잡고 쭈뼛쭈뼛 센터에 왔던 한 자매가 생각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자매는 좋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조차 다니지 못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손을 함께 잡고, 같이 걷겠노라 이야기하며, 꿈드림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해주시는 열정 가득한 멘토 선생님들과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매일 꿈드림에 살다시피하며 학습에 전념한 두 자매는 1년 반 만에 초·중·고 출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언니는 이전까지는 상상해보지도 못한 대학 진학을 꿈꿨고, 동생은 꿈드림에서 진행하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공방'의 꿈을 키웠습니다. 현재 언니는 어엿한 대학생으로, 동생은 작은 공방을 위한 밀거름의 직업훈련을 성실히 받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우리 또한 성장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이 친구들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꿈드림 선생님들은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Q. 영상을 찍고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영상 중간까지 뺀인지 몰랐는데, 중간에 안경 벗은 모습을 보고 땅 터졌어요. 영상 속에 나오는 장소들이 익숙한 곳들이라 즐거우면서도 슬펐어요. 센터에 빨리 가고 싶어요.", "싱크로율 100%다!", "복불인가요. 너무 웃겨서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ㅋ",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건가요??ㅋㅋㅋ" 등 다양한 반응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반응을 보고, 저 또한 너무 흐뭇하였죠.

이모님이 계신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대해 소개 부탁드려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돋는 청소년들의 공간'입니다. 각 시 군 구 단위로 센터가 있으며, 그 중 저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중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만나는 우리 꿈드림 친구들은 학업복귀(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상급학교 진학, 복학 및 대안학교) 및 사회진입(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인턴십, 취업) 등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멋진 학교 밖 청소년'들이랍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꿈드림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나요?

휴관 이후 꿈드림에서는 지속적으로 간접 식사대용품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식사대용품 지원과 함께 교육지원(온라인 수강권, 학습자료, 교재 제공), 건강관리(사회적 거리두기, 건강상식, 마스크, 손소독제 지원, 건강 상태 확인 등), 상담지원(심리·정서적 지원), 여가활동지원(취미활동 키트 제공 등)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드림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빛나고, 사랑받기 충분한 우리 친구들!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선생님들 곁에 와줘서 고마워! 아주 많이 찐~하게 사랑한다!



충주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020년에 각자하고 삼은 일, 해야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계획대로 이루지 못해 속상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현재 내가 할수있는
것들을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 분명 발전되고
행복한 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날때까지 건강 잘챙기고,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새움-

긴 터널 속에 있는 듯한
오즈음... 우리 친구들도
많이 답답할거에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듯이 하루
하루 열심히 살다보면 끝이
보이리라 믿어요.
우리 모두 화이팅.

최대 자세방법 빠른 시선바기 '충분한 우리 친구'!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선생님들 결에 안에서 100%!!
 아주 많이 좋아하게~!! 사랑합니다. —지혜—

▲충주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선생님들의 꿈드림 친구들을 위한 메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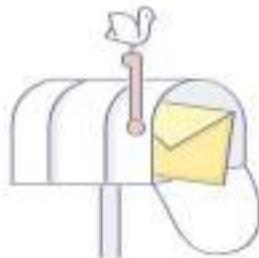


[자세히보기>](#)

중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꿈드림'이란 '꿈'과 '드림(Dream)'의 합성어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여려 가지 꿈을 가진 청소년을 응원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코로나19에 함께 맞서는 우리

- 재단 운영시설 주요소식 -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별

꿈꾸는별 새단장(2020년 기능보강사업 실시)
꿈꾸는별이 위치한 건물은 21년 정도 경과하여 노후화에 따른 누수, 방음, 단열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생긴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난 4월 27일~5월 8일 '2020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쉼터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쉼터 내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구조변경(수면실 6인 1실→2인 1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평화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32-817-1318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별사탕

긴급 물품지원사업 '별팡 배송'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위기상황 속에 별사탕 외 거주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긴급 생계 물품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비대면 상담(전화, 메시지, 채팅 등)을 통해 각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생계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거주하는 곳까지 직접 배송하여 청소년들의 만족도(97.9%)가 높았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차, 3차까지 긴급 생계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 032-654-1318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쉼터 내부 활동프로그램 진행

코로나19 예방대책에 따라 계획하였던 외부활동들이 내부활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연계 기관으로부터 활동키트를 지원받아 5월 한 달간 공예 활동과 직업체험활동(젤 캔들·미니어처·쇼콜라티에 등)을 진행하였으며, 자치회의를 통해 실내 스포츠, 루프탑캠핑, 미니 대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체험과 놀이·문화활동을 통하여 보호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쉼터 생활을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031-434-1318

맑음뉴스**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비대면상담 진행 및 방역물품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월 말부터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했던 청소년동반자 역시 전화와 문자상담 등으로 청소년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마스크와 방역제품을 전달하며 코로나19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고위기 청소년의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사례논의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청소년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중입니다.

☎ 032-721-2303

**인천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밥꿈선생' 전달**

인천광역시 꿈드림에서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비롯한 즉석조리식품을 담은 '집밥꿈선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중에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지원함으로써 2020년 제1회 검정고시에 응시한 청소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032-721-2330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선물 박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어려운 40명의 위기 청소년들에게 마스크, 손 소독제, 간식류와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은 '선물 박스'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끈 상태였지만, 오랜만에 만난 청소년들과 상담자들은 함께 환한 웃음을 교환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위생에 신경 쓰며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 032-547-0856

**인천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바다의별****코로나19 "슬기로운 방역생활"**

바다의별 청소년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가지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3가지는 마스크 꼭 착용하기, 외출 후 손 씻기와 손 소독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기로, 안전수칙을 지킨 결과,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배려심, 책임감이 보다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쉼터에서는 우리 재단을 비롯하여 관공서 등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방역용품과 지역사회에서 쌀 등을 후원받아 슬기롭게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 032-438-1318



인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별마루

별마루 코로나 대책위원회 실시

별마루 청소년들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경각심을 갖기 위하여 코로나 위험성,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서로 챙겨주기, 식사 시 담소 나누지 않기, 가까이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의견들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쉼터에서는 일일 발열 체크 및 내부 소독을 철저하게 진행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032-875-7718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

별바라기 브이로그 공모전 개최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자립지원관 및 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자의 일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는 "일상생활 브이로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근로, 학업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보내길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추후 공개에 동의한 청소년에 한하여 자립지원관 홈페이지에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 032-875-1319



인천광역시청소년자활작업장

코로나19 대응

그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 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의 공공시설 제한적 운영 허용에 따라 7월 20일(월)부터 운영을 제재하였습니다. 이에 훈련청소년들과 카페임 고객들을 위해서 마스크·장갑 착용,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하며, 수시로 자활작업장 시설 내부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032-773-1319



계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꿈★팡맨

3월 31일, 4월 1일 이틀에 걸쳐 계양구 꿈드림에서는 사례관리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꿈★팡맨'을 운영하였습니다. 센터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검정고시 시험대비를 위한 학습지원, 간식 및 물품 제공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재, 간식,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의 후원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 032-547-0853

맑음뉴스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코로나19 대응 온라인 화상상담 진행**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 내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위기청소년의 긴급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센터 사례회의를 진행하여 방문상담 및 내방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화상상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되는 부모-자녀 갈등 및 심리정서적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032-749-6295

**연수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응원 박스도 받고! 검정고시도 보고!**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조치 중인 연수구 꿈드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식사 대체용품, 간식, 마스크, 손소독 물티슈 등을 담은 응원박스를 총 8차례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연수구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기프트카드(주민참여예산 지원)를 4월부터 월 1회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응원에 힘입어 2020년 검정고시 1차 시험에 37명이 응시하였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032-822-9840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한 센터 휴관으로 인해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내담자 32명에게 비타민사탕을 동봉한 손편지를 보내 공감하고 응원하였습니다. 편지를 받은 청소년 내담자들은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상담선생님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 감동을 받았다", "선생님 응원에 힘이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휴관으로 인해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기사례에 대해서만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032-773-1318

**중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식사대용품 긴급지원 꾸-움 배송**

4월부터 중구 꿈드림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식사대용품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급식지원 외 교육지원 233회(온라인 수강권, 학습자료 제공, 교재지원 등), 건강관리 423회(사회적 거리두기, 건강상식, 마스크, 손소독제, 위생용품 지원, 건강상태 확인), 상담지원 688회(심리·정서적 지원 등), 여가활동지원 72회(취미활동키트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032-765-1008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THANK YOU 프로젝트

시흥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특성화 동아리 청소년들이 주관하여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1차: 공적마스크 판매국, 2차: 센트럴병원, 3차: 보건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종식 및 예방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시흥시 관내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의 감사 및 응원 메시지와 소정의 간식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 THANKYOU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 031-315-1897

어디까지 가겠니? B.I.N.G.O

수련관 친목체육 승강기에서 눈이었다	자녀연예 해본적이있다	수련관에서 자원봉사 해본 적있다	수련관 램 면호 안다
친미호흡 활동과였다 기다려졌다	청소년 험프 가졌다	수련관 만들 과정이랑 얘기해했다	수련관 개시되어 들여요 5개 이상 들어왔다
꽃들장식 가웠다	자녀에서 하고파 를 하였다	수련관 고양이 아니라하였다	오기 귀찮아서 화도 빠져버렸다

연수구청소년수련관

SNS 플랫폼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과의 대면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성화시키기 위해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SNS 이벤트(연청수방고, 3행시, 투표 인증)와 청소년 활동정보 카드뉴스 배포(선거권, 청소년증 등), YOUTUBE 콘텐츠(20대가 말하는 10대 때 이거 해볼걸)를 제작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로 수련관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활동 정보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 032-833-2012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청년서포터즈 '미담' 4기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5월 30일, 청년서포터즈 '미담' 단원 14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담'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을 서포팅하고 진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3월 선발 이후 화면으로나마 처음 만난 단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긍정적인 동기를 얻으며 '미담' 단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032-833-2015



인천진로교육센터

진로지원단 교육 진행

3월에 선발된 3개 분야 50여 명의 진로지원단 교육을 5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로검사 해석 특강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을 주제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을 운영하는 상담지원단,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는 학부모지원단, 다양한 진로멘토링을 이끌고 있는 대학생 멘토지원단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 070-4204-4622

재단 주요소식



5월 20일, 우리 재단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의 후원을 받아 코로나19 방역용품을 재단 운영시설을 포함하여 인천지역 내 청소년 생활 및 이용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시설에 생활거나 방문하였을 때 필요한 물품인 비접촉식 체온계 120개, 방역마스크 4,000개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4월 2일, 간석4동성당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직접 만든 마스크와 손소독제, 그리고 여성용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해당용품을 통해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생활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단 운영시설들에 고루 전달하였습니다.



3월 3일, 히얼아이엠(Here I am)에서는 여자들의 필수품인 여성용품, 클렌징폼 등의 물품을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흥시여자단기 청소년쉼터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후원해 주셨습니다.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보호하는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원안내

후원회원님께 안내 드립니다!

▣ 첫째, 청소년들을 위하여 후원금이 잘 출금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동이체(CMS)를 통한 후원의 경우, 이체일자에 잔액이 부족할 시 출금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체일자에 출금이 실패되면 일주일 이내로 재출금이 1차례 진행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출금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원종결로 간주되오니, 자동이체 일자에 맞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둘째, 후원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세요!

후원회원님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후원회원님께 필요한 서비스와 후원회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회원님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꼭 재단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후원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 셋째, 매월 후원회원님을 기억하며 재단 신부님들께서 미사를 봉헌해요!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재단 소속 신부님들께서 후원회원님들을 위하여 감사미사를 봉헌합니다.

청소년의 가능성을 믿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후원회원님의 영육간 건강과 언제나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혹 미사지향을 원하실 경우, 이메일(sagy03@yism.or.kr)로 지향내용을 보내주시면 함께 봉헌해드리겠습니다. 예시) 후원회원명 / 지향내용 등

▣ 넷째,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기부금영수증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확인 및 자동 발급이 가능 합니다. 단, 후원신청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후원회원님에 한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와 더불어 환경보호를 위하여 우편발송 대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 후원참여 ♥

후원회원님의 작은 나눔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어주세요!

정기후원 | CMS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일시후원 | 후원계좌 입금 등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4-226501

우리은행 1005-001-494596

KB 국민은행 651001-01-292719 NH 147-01-214064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성명 (기업명)				세례명·축일	(/)	
연락처				이메일		
카드 및 소식지		<input type="checkbox"/> 발송	<input type="checkbox"/> 미발송	주소		
국세청 연말정산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기부금증수증 발급증수증(기부금증수증 제208호의3)	
후원일자	매월	<input type="checkbox"/> 1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
후원금액	매월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납부방법 (대1)	자동이체 (CMS)	은행사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휴대전화		
	카드 (신용/체크)	카드사		명의자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명의자 생년월일		명의자 휴대전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구분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수집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후원회원이 제공한 정보 및 후원금 결제정보	정기납부(CMS 또는 카드)를 통한 후원금 출금 및 결제관리, 기부금증수증 발급 등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정기납부(CMS 또는 카드) 종료(해지)일 5년까지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정기납부(CMS 또는 카드)를 통한 후원신청 및 기부금증수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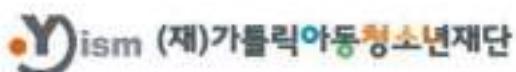
제공대상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융결제원, 유언소프트웨어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후원회원이 제공한 정보 및 후원금 결제정보	정기납부(CMS 또는 카드)를 통한 후원금 출금 및 결제관리, 기부금증수증 발급 등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정기납부(CMS 또는 카드) 종료(해지)일 5년까지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정기납부(CMS 또는 카드)를 통한 후원신청 및 기부금증수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정기납부(CMS 또는 카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인 또는 서명)



해당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우편, 팩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032)766-7942 또는 홈페이지 www.yism.or.kr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동행명단

청소년과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
후원

(주)경도트레이	강석민	경광호	곽경환	권순임	김경희	김동관	김미연	김서연	김수명	김연하	김용국	김은혜
(주)경원티크원	강석태	고경희	곽난희	권명배	김계성	김동길	김미영	김서영	김수분	김연희	김용근	김은희
(주)대풀티엔티	강선희	고규철	곽명근	권명희	김계순	김동란	김미옥	김서우	김수연	김연구	김용기	김용남
(주)렉스바	강성욱	고금자	곽미혜	권예림	김관식	김동미	김미자	김석봉	김수영	김영권	김용래	김용선
(주)마주비먼텍	강성원	고미숙	곽소영	권오준	김광수	김동배	김미정	김석신	김수용	김영규	김용만	김용원
(주)목방장호건설	강성조	고선례	곽은실	권오충	김광명	김동순	김미현	김석희	김수자	김영덕	김용비	김의수
(주)비연비아이엔티	강소리	고수완	곽인현	권용민	김광진	김동예	김미협	김선경	김수정	김영란	김용선	김의술
(주)삼진풀리	강수영	고순자	곽종일	권용진	김광철	김동원	김미희	김선권	김수진	김영만	김용숙	김의로
(주)선주	강숙자	고승찬	구길희	권원구	김광화	김동한	김민경	김선기	김숙진	김영미	김용업	김인경
(주)신양산업	강순자	고민나	구본미	권유한	김광희	김동호	김민서	김선래	김숙자	김영빈	김용은	김인선
(주)엘피시스템	강신우	고영식	구본찬	권은경	김교식	김두란	김민석	김선미	김숙정	김영분	김용일	김인숙
(주)우성건설	강신이	고영심	구본철	권정원	김귀영	김두일	김민선	김선숙	김숙현	김영산	김용주	김일경
(주)진명프리텍	강신중	고목관	구부릴	권춘희	김귀옥	김두환	김민수	김선애	김순남	김영상	김용준	김일숙
(주)케이비티	강영구	고요셉	구서연	권혁	김귀희	김득자	김민아	김선영	김순녀	김영선	김용중	김일희
(주)희망학원(임정선)	강영숙	고용녀	구순복	권혁미	김규례	김판	김민정	김선자	김순덕	김종섭	김용태	김밀순
부천운전기사사회	강영자	고용희	구운화	권혁선	김구박	김란자	김민주	김선희	김순쁜	김영수	김운경	김자명
월드스타주식회사	강영희	고원일	구윤명	권현우	김규호	김래숙	김민지	김성준	김순례	김영숙	김원기	김자운
강성표	강예은	고유찬	구윤희	권혜수	김금숙	김마리아	김민채	김성규	김순록	김영순	김원순	김장손
김기찬	강욱예	고윤미	구자성	권희명	김금숙	김만종	김방미	김성기	김순동	김영신	김원식	김장식
김밀희	강용수	고은주	구자원	금경순	김기범	김만혜	김방진	김성수	김순이	김영애	김원영	김장희
라현준	강용자	고재국	구자현	기미화	김기수	김명국	김병균	김성숙	김순진	김영웅	김원욱	김재경
박원재	강유권	고재성	구정순	기선희	김기순	김명규	김병역	김성매	김순태	김영이	김원태	김재관
유영숙	강은우	고재영	구청인	기옥순	김기명	김명내	김병휘	김성예	김순편	김영밀	김유라	김재광
이재학	강은이	고정숙	구정자	기온창	김기록	김명동	김보기	김성완	김순향	김영자	김유령	김재복
이효민	강은지	고정은	구훈원	길선명	김기창	김명란	김보람	김성용	김승기	김영중	김유진	김재석
최민비	강재호	고지원	구준희	길성봉	김기호	김명래	김보민	김성우	김승기	김영진	김유홍	김재수
한태경	강정미	고지은	구진오	김가영	김기호	김명수	김보배	김성이	김승훈	김영철	김운배	김재순
허홍	강정선	고진형	구혜경	길감수	김길주	김명숙	김보영	김성일	김승희	김영호	김유년	김재우
가순	강정숙	고충경	국상호	김감술	김길현	김명순	김복수	김성종	김시관	김영화	김운숙	김재욱
간수현	강정원	고해영	국유리	김건선	김길환	김명심	김복실	김성철	김시율	김영희	김유식	김재원
강경수	강정자	고혜선	권경숙	김건영	김나림	김영아	김복연	김성현	김신	김영희	김유정	김재율
강경식	강줄민	고홍진	권계숙	김건훈	김남구	김명애	김복희	김성훈	김신숙	김예리	김운조	김재원
강경화	강주아	고호	권동채	김경남	김남석	김명열	김봉미	김성희	김아름	김예슬	김운철	김재준
강고은	강주현	고홍질	권동훈	김경미	김남숙	김명록	김봉애	김세권	김아림	김예주	김유현	김재학
강금식	강주정	고희경	권명숙	김경민	김남혜	김명자	김봉숙	김세라	김아영	김목	김유희	김재호
강금순	강준숙	곰대한	권미연	김경선	김남희	김명재	김봉주	김세영	김예숙	김목경	김은경	김재희
강기민	강증기	곰도운	권미초	김경섭	김단아	김명환	김봉희	김세운	김예자	김목례	김은미	김재희
강덕호	강한숙	공상철	권민정	김경수	김달중	김명희	김부동	김세중	김양미	김목분	김은성	김전희
강동선	강현표	공성규	권민진	길경숙	김대건	김문구	김분남	김세화	김여진	김목선	김은숙	김점순
강동하	강혜정	공속경	권병한	김경순	김대규	김문기	김사엽	김소미	김연관	김목수	김은순	김정규
강문주	강혜진	공영마	권설한	김경마	김대현	김문영	김사인	김소연	김연동	김목순	김은실	김정남
강미령	강홍주	공원규	권세중	김경애	김대호	김문영	김삼근	김소영	김명향	김목이	김은마	김정동
강마숙	강효경	공원자	권세현	김경옥	김대환	김미경	김상라	김송	김연봉	김목자	김은목	김첨란
강민혜	강효진	공유라	권속희	김경우	김여순	김미라	김상선	김송연	김연수	김목정	김은정	김정왕
강복희	강홍선	공윤숙	권순역	김경자	김덕신	김미란	김상연	김송유	김연숙	김목조	김은주	김정미
강분이	강희정	공익상	권순만	김경해	김도경	김미선	김상목	김송희	김연실	김목주	김은지	김정숙
강상락	강희충	공현자	권순석	김경호	김도완	김미숙	김상천	김수경	김연육	김목진	김은재	김정순
강세희	전민경	곽경화	권순애	김경환	김도윤	김미애	김상하	김수란	김연주	김목희	김은하	김점아

김정임	김진근	김행순	김휘중	노명주	문윤주	박기영	박선숙	백윤범	백자연	백혜지	백은정	세향자
김정연	김진남	김향	김휴선	노위경	문장원	비나경	박선웅	백윤분	백자영	백호근	백철주	세현정
김정엽	김진미	김향근	김홍태	노은숙	문점득	박남홍	박선정	백윤필	백자윤	백호철	백정희	세현주
김정욱	김진민	김향란	김희경	노점숙	문정숙	박노증	박선호	백원기	백자혜	백홍순	백종열	세호얼
김정예	김진석	김향숙	김희선	노정자	문정순	박능균	박선후	백평선	백자환	백화실	백주연	세호진
김정원	김진숙	김향임	김희연	노준환	문정훈	박다예	박선희	백원호	백자훈	백흔이	백지속	세희목
김정은	김진마	김현경	김희영	노진수	문정희	박다운	박성근	백은내	백진경	백통식	백지은	세성숙
김정일	김진학	김현규	김희원	노창생	문주영	박대성	박성례	백은미	백진식	백홍순	백진주	세영선
김정자	김진호	김한동	김희철	노하정	문자미	박동섭	박성준	백은숙	백진수	백희법	백진희	세인철
김정지	김진화	김한미	김희진	노현진	문춘섭	박동숙	박성자	백은아	백진아	백희순	백찬기	센규상
김정현	김진희	김한숙	나경	노현호	문희동	박동은	박성현	백은영	백진이	백희자	베타민	선상준
김정호(레투스컴퍼니)	김찬웅	김현순	나경자	도경희	문화무	박동혁	박성희	백은주	백진희	백희재	백현태	선면분
김정화	김창근	김한예	나관순	도승현	문화원	박돌이	박세미	백은희	백차영	반혜정	변명주	선영희
김정환	김창례	김한웅	나성녀	도재숙	문화장	박만국	박소영	백의화	백한국	방극준	변영섭	선준화
김정희	김창숙	김한재	나수선	도현순	문화자	박명수	박소련	백인숙	백찬금	방금숙	변윤수	설성환
김정희	김창열	김한정	나미선	당리교한	민경선	박명숙	박술건	백인재	백한실	방농현	변은주	성금숙
김종구	김창용	김한주	나육화	라뮤진	민경숙	박명순	박송희	백장서	백한옥	방미옥	변은하	성기완
김종국	김창휘	김한진	나윤선	류경희	민경신	박명희	박수영	백재범	백한진	방상권	변자숙	성기운
김종녀	김천영	김한호	나인천	류미경	민경한	박미경	박수진	백재빈	백창현	방은진	변현숙	성기준
김종대	김철성	김한희	나현은	류미화	민경화	박미나	박수현	백재석	백채은	방종범	변화숙	성도한
김종식	김철순	김한국	나정희	류원석	민공용	박미린	박수혜	백재선	백철영	방종설	변화원	성미숙
김종연	김철중	김한숙	남강자	류인걸	민대희	박미래	박숙자	백재숙	백철우	방준천	목성광	성미자
김종열	김형자	김형웅	남경희	류재명	민의기	박미선	박순남	백재순	백철진	방형경	봉인숙	성보경
김종욱	김초은	김형준	남계현	류정현	민미언	박미소	박순덕	백재원	백준실	배경숙	부불하	성선미
김종진	김준규	김형준	남궁길구	류제락	민병선	박미숙	박순자	백재희	백준자	배대준	부옥순	성소미
김종철	김준한	김형진	남궁선	류제성	민인나	박미애	박순화	백정렬	백준희	배민정	사경동	성수경
김종태	김준미	김형찬	남궁순덕	류종택	민안젤라	박미양	박슬기	백정복	백치협	배민주	서갑승	성수용
김종한	김준실	김혜라	남궁은영	류주영	민영	박미옥	박승운	백정선	백태순	배봉옥	서거민	성은미
김종혁	김종경	김혜리	남궁민순	류준현	민영문	박미현	박시면	백정순	백태영	비부연	세근숙	성은정
김종현	김태도	김혜민	남기기	류중선	민영순	박미희	박아향	백정마	백태원	비술옥	서기연	성재숙
김종훈	김태민	김혜선	남기영	류지니	민은미	박민근	박안나	백정은	백태준	비운식	세다은	성점용
김좌동	김태선	김혜숙	남기원	류현숙	민준식	박민영	박양자	백정이	백하나	배은숙	세동길	성정임
김좌성	김태숙	김혜순	남기정	류정선	민진명	박태화	박연재	백정환	백한권	비은영	세벌석	성지호
김주문	김태연	김혜연	남기학	류희선	민화옥	박범성	박연철	백중덕	백향순	비외수	세삼현	성진수
김주애	김태오	김혜영	남길주	마경숙	박강무	박병진	박연화	백중란	백한영	비인숙	세선영	성해영
김주영	김태웅	김혜정	남동진	마은경	박강준	박병주	박연희	백중민	백한용	비정숙	세성숙	소명희
김주원	김태윤	김혜진	남동우	마제순	박경한	박병현	박영례	백중문	백현경	비정하	세숙자	소자선
김주현	김태은	김혜하	남미애	마정애	박경례	박상근	박영식	백중선	백현규	비준용	세아람	소진숙
김주협	김태현	김호순	남석우	맹소현	박경미	박상관	박영선	백중성	백현미	비태하	세안나	소진순
김준모	김태향	김호정	남양애	맹영숙	박경수	박상식	박영숙	백중수	백현민	비효준	세양자	손가영
김준숙	김태훈	김홍명	남영주	명세식	박경숙	박상수	박영수	백중순	백현수	비귀순	세영식	손경목
김준식	김태희	김홍배	남용기	모예경	박경순	박상순	박영식	백중운	백현숙	백금자	세용관	손명자
김준호	김백수	김홍석	남은희	모준필	박경실	박상숙	박영애	백중후	백현순	백남동	세우식	손명희
김준화	김판도	김홍섭	남재홍	목경자	박경애	박상원	박영숙	백주연	백현아	백도자	세유자	손미라
김준희	김필호	김홍자	남정선	문건수	박경희	박상정	박영자	백주연	백현열	백동한	세은영	손미숙
김자강	김하리	김홍희	남정원	문경빈	박경운	박상준	박영제	백주해	백현자	백명희	세은희	손미준
김자선	김하영	김화내	남향호	문경숙	박경원	박상정	박영조	백주한	백현정	백미나	세인자	손성만
김자연	김학봉	김화선	남태영	문경진	박경일	박서영	박영주	백주한	백현준	백민호	세정길	손설숙
김자숙	김학진	김화숙	남태자	문글희	박경주	박서운	박영준	백준서	백현철	백선해	세정숙	손성행
김자유	김한도	김화영	남희순	문기순	박경희	박서화	박영철	백준아	백형수	백승호	세정실	손성현
김자윤	김한미	김화자	노경희	문상금	박계순	박식홍	박영태	백준목	백혜미	백승희	세정아	손성희
김자율	김한분	김호석	노보영	문선희	박광수	박석환	박영하	백준형	백혜선	백영미	세정윤	손순금
김자은	김해경	김호선	노선영	문성숙	박갈우	박선경	박영호	백준희	백혜숙	백영식	세정화	손명순
김자인	김해금	김호성	노수연	문송이	박금순	박선규	박예원	백준현	백혜영	백예슬	세총련	손옥임
김자현	김해순	김호숙	노숙자	문숙자	박금호	박선미	박옥란	백준희	백혜원	백윤석	세자원	손용승
김자훈	김해연	김호진	노안나	문연희	박금희	박선애	박옥연	백자선	백혜인	백윤록	세진숙	손용운
김진경	김해옥	김훈환	노영숙	문영미	박기안	박선양	박윤민	백자애	백혜정	백은염	세진우	손은숙

손일수	송향목	신정은	안기라	이마구	염성수	오창국	유선실	윤덕희	윤창길	이금자	이미선	이상희
손재순	송현	신정희	안기순	치현지	염순도	오창선	유선영	윤동숙	윤태민	이기감	이미숙	이세희
손정민	송현순	신제명	안덕성	양경선	염명일	오준근	유선희	윤명구	윤해미	이기녀	이미순	이서민
손정순	송학범	신주섭	안덕수	양다미	염정윤	오치종	유설아	윤명덕	윤현경	이기동	이미애	이석구
손증호	송효정	신준화	안덕순	양동화	예정자	오택원	유성혜	윤문상	윤현구	이기숙	이미연	이석순
손흔태	송희정	신중숙	안명덕	양영임	오경록	오하진	유선흰	윤미	윤현상	이기순	이미영	이석우
손학영	신경숙	신장목	안명숙	양명진	오경률	오한숙	유소현	윤미령	윤현임	이기연	이미옥	이선경
손해련	신경순	신정례	안명희	양모아	오경아	오중근	유수자	윤미숙	윤형석	이기명	이미자	이선미
손혜경	신경희	신하진	안미란	양미녀	오경희	오휘환	유수정	윤미순	윤혜경	이기숙	이미정	이선숙
손혜진	신관섭	신해정	안미리	양명태	오귀숙	목관철	유숙희	윤미희	윤혜숙	이기운	이미지	이선실
손화숙	신귀화	신현구	안미숙	양상연	오규철	옥광미	유순주	윤별철	윤혜순	이기종	이미진	이선아
손효색	신근철	신현분	안민준	양석원	오근수	온정아	유슬옹	윤병희	윤혜정	이기준	이미희	이선애
송경순	신기연	신현순	안병숙	양수현	오금숙	온창한	유승희	윤삼순	윤혜진	이기중	이민숙	이선영
송경은	신기철	신현웅	안병희	양은정	오나영	왕진택	유연희	윤상호	윤호준	이기진	이민우	이선자
송규자	신년수	신현주	안보복	양은주	오늘희	용현정	유영남	윤서영	윤홍규	이기표	이민자	이선주
송나래	신도영	신현진	안복희	양인모	오덕수	용희숙	유영숙	윤석호	윤홍근	이기해	이민정	이선희
송다희	신동국	신혜경	안민민	양재숙	오만환	우복경	유명신	윤석호	윤희식	이기환	이민희	이성구
송락현	신동근	신희성	안선영	양재민	오명선	우수경	유영태	윤선아	이간란	이질수	이범남	이성길
송막동	신동기	신희마	안선희	임재찬	오미남	우승업	유영훈	윤성준	이갑진	이나영	이범준	이성무
송미애	신동숙	신희자	안설희	임정자	오미선	우연희	유은교	윤세옥	이감곤	이남희	이병호	이성배
송미자	신동욱	실톡아	안세근	임지현	오미자	우영숙	유은순	윤속자	이강미	이다원	이병곤	이성봉
송민경	신동진	심문화	안수진	임진심	오병서	우편희	유은지	윤숙중	이감민	이대성	이병귀	이성검
송민서	신동희	심미순	안숙향	임학임	오상희	우재언	유은희	윤순덕	이감밀	이덕실	이병남	이성숙
송민선	신미경	실범백	안순기	임향희	오선희	우재영	유인선	윤순희	이건숙	이덕우	이병선	이성우
송민자	신미순	실상규	안순자	임현	오성준	우지리	유재안	윤승구	이건천	이도단	이병욱	이성웅
송민호	신미영	실상기	안승철	임현호	오선헤	우진희	유정숙	윤승진	이경남	이동경	이병찬	이세리
송민화	신미옥	심상은	안야영(하나바이비영상제자)	임홍애	오세만	우향숙	유정순	윤여용	이경내	이동열	이병희	이소라
송병의	신미자	심상찬	안영란	임희총	오세열	원간현	유줄문	윤여학	이경록	이동엽	이보람	이소연
송봉주	신범준	심상진	안영수	임희경	오세명	원경록	유주현	윤연숙	이경미	이동윤	이복단	이소영
송서밀	신범철	심세연	안영목	임희숙	오세웅	원상언	유준상	윤연희	이경삼	이동현	이복자	이소임
송선기	신사철	심숙희	안영자	임희자	오수안	원세훈	유지혜	윤명란	이경선	이동환	이복정	미송의
송선명	신선희	심순복	안영주	임희재	오수연	원순종	유창영	윤명숙	이경수	이두남	이봉섭	미송이
송수정	신선희	심우창	안영현	임경필	오숙자	원명경	유철호	윤명오	이경숙	이두희	이봉숙	이송자
송숙영	신성애	심유진	안영희	임기호	오순자	원명민	유춘선	윤명원	이경순	이라미	이봉우	이송주
송승한	신성희	설윤철	안용섭	임성민	오승민	원용정	유태민	윤명희	이경식	이로사	이봉철	이수경
송면재	신수빈	심은미	안용기(다니엘교회)	임왕식	오승주	원잔우	유하나	윤용훈	이경마	이만중	이비마	이수미
송명관	신순화	심은자	안유진	임용래	오승환	원한필	유현숙	윤은비	이경애	이만호	이산호	이수연
송영주	신승현	심인영	안은경	임유미	오명현	유경란	유현아	윤은자	이경면	이만희	이상건(E)	미수용
송영준	신연일	심재웅	안은첨	임의찬	오왕철	유경숙	유형식	윤은정	이경록	이팔자	고려대학원당어학원	이수자
송명철	신연수	실지현	안은주	임일호	오윤탁	유경자	유형일	윤은하	이경원	이명녀	이상국	이수정
송예원	신면옥	실태환	안재공	임재현	오원정	유금한	유혜경	윤의강	이경진	이명분	이상기	이수진
송옥경	신명단	심현경	안재명	임지은	오은경	유기봉	유화영	윤의중	이경화	이명선	이삼남	미수정
송은선	신명선	심현기	안정윤	임한호	오은주	유기송	유희경	윤창섭	이경환	이명수	이상목	미숙경
송인선	신명숙	심현민	안정자	임황성	오민주	유기숙	유희정	윤정숙	이경희	이명숙	이삼목	미숙정
송인순	신명순	심현수	안종길	임태식	오민학	유내연	유희진	윤정순	이계한	이명신	이상미	미숙자
송재권	신명예	심현홍	안종학	임호섭	오인환	유만상	유각준	윤정목	이관우	이명숙	이상병	미숙진
송재우	신목선	심화자	안종현	임경숙	오자영	유명애	윤경미	윤정자	이광숙	이명자	이상선	미숙현
송재은	신목재	심준	안종훈	여명숙	오재정	유문화	윤경순	윤정희	이광자	이명훈	이상숙	미숙희
송정갑	신용선	심희진	안지연	여창한	오재철	유미숙	윤경아	윤종천	이국립	이명희	이상운	미순덕
송정숙	신윤경	인경미	안지현	연규자	오정발	유미순	윤경자	윤준석	이귀분	이문기	이상은	미순분
송정연	신율숙	인경숙	안지혜	연미화	오정숙	유민영	윤경희	윤증완	이규봉	이문선	이상민	미순애
송주현	신이숙	안경애	안자순	연율희	오정윤	유명선	윤금숙	윤지민	이규빈	이문자	이상민	미순숙
송진수	신인덕	안경복	안합명	연정동	오정화	유명열	윤기순	윤지애	이규순	이문재	이상진	미순이
송진숙	신진숙	안경재	안창희	연동숙	오정환	유명호	윤기준	윤지원	이규원	이문희	이상현	미순임
송진용	신정미	인공성	안철수	연동학	오정희	유상길	윤남영	윤지희	이규훈	이미경	이상혁	미순자
송태근	신정선	인공목	안준녀	염미진	오종환	유석현	윤대업	윤진석	이근우	이미라	이상호	미순희
송태자	신정숙	인광현	안현주	염민우	오준석	유선비	윤대영	윤진순	이금순	이미란	이상풍	미술희

이승수	이용숙	이재원	이준호	이현아	임선영	장경숙	장찰모	전혜원	정순정	장찬숙	조병선	조진선	지후준	최점화	최순규
이승숙	이용원	이재준	이준화	이현용	임선진	장경일	장철홍	전혜정	정순희	장철수	조병열	조진우	지희숙	최광기	최순미
이승아	이용자	이재철	이준호	이현우	임선희	장경자	장태경	전호철	정승기	장철	조복례	조진희	진규연	최광문	최순애
이승언	이용주	이재혁	이준희	이현운	임성자	장경운	장한숙	정경숙	정승덕	장철호	조부천	조활숙	전문경	최광수	최순영
이승열	이용철	이재현	이준화	이현정	임세미	장계숙	장향무	정경아	정승철	장춘자	조상윤	조창국	진병숙	최광자	최순이
이승영	이용환	이정순	이지선	이현지	임수영	장관숙	장현도	정경임	정승환	장태섭	조선경	조하정	진병호	최광천	최순임
이승원	이우복	이점희	이지연	이현택	임수용	장관일	장한숙	정경진	정양숙	장태자	조선애	조한동	진사광	최금순	최순자
이승은	이우정	이정한	이지평	이현희	임순례	장광섭	장한국	정경희	정연국	장백진	조선옥	조한숙	진선영	최기호	최승용
이승주	이문용	이정미	이지우	이협민	임순선	장국진	장혜경	정고은	정연숙	장혜금	조선희	조합일	진정숙	최나현	최승환
이승철	이운자	이정민	이지현	이형선	임승용	장길훈	장혜란	정광호	정연이	장혜명	조성남	조행식	진종임	최남숙	최승희
이승호	이원선	이정선	이진섭	이형운	임승이	장동우	장혜숙	정규남	정면자	장혜은	조성숙	조항순	진체숙	최남영	최만나
이승훈	이원밀	이정수	이진숙	이형우	임여진	장동훈	장혜원	정규산	정연주	장혜만	조성숙	조혜란	진철균	최덕구	최예경
이승희	이원호	이정숙	이진아	이형화	임연숙	장두희	장혜정	정규순	정연직	장혜재	조성자	조혜리	진현영	최만순	최양숙
이시윤	이유경	이정신	이진율	이혜경	임열오	장득한	장혜진	정근명	정명미	장현기	조성호	조혜숙	진현주	최만자	최명란
이시은	이유민	이정아	이진현	이혜란	임영경	장명자	장혜순	정금선	정명선	장현남	조소진	조혜명	진희정	최밀례	최명숙
이신숙	이유정	이정민	이진혁	이혜린	임영선	장명한	장경복	정금자	정명섭	장현식	조수경	조호연	차광식	최명부	최명식
이예희	이윤로	이정애	이진희	이혜선	임영식	장문정	전경연	정기수	정명순	장현애	조수연	조호자	차명순	최명선	최명목
이양숙	(경 성기)	이정영	이장남	이혜숙	임영자	장미경	전경환	장길수	정영애	정현주	조수현	조화선	차범진	최명수	최명숙
이양순	계기아	이정목	이찰우	이혜연	임용관	장미나	전능한	정다인	정명인	정혜선	조속희	조화자	차성기	최명숙	최명일
이양주	이윤복	이정우	이창한	이혜정	임우택	장석발	전명근	정대철	정명자	정혜수	조순덕	조화자	차성우	최명숙	최명자
이양한	이윤석	이정이	이채민	이혜진	임유진	장성숙	전명숙	정도환	정명철	정혜숙	조순애	조호기	차순희	최명자	최명철
이양현	이윤선	이정임	이채숙	이화	임은경	장세훈	전명숙	정동운	정명호	정혜영	조순연	주경숙	차망순	최별호	최명태
이연숙	이윤섭	이정자	이채정	이화민	임은숙	장숙희	전명희	장릭녀	정영준	정혜원	조순자	주노성	차영선	최명희	최애나
이연우	이윤정	이정재	이천한	이화영	임은주	장순내	전문수	정민호	정목근	정혜정	조마라	주노군	차영숙	최모니카	최예원
이연주	이용지	이정주	이형자	이화자	임의숙	장순진	전미영	정명실	정육속	정혜진	조연순	주명화	차예한	최문선	최옥선
이연호	이은경	이정찬	이초록	이화진	임익현	장순천	전삼수	정명숙	정육희	정호운	조연욱	주미관	차목숙	최문자	최옥선
이연화	이은모	이정한	이초부	이희영	임민숙	장승아	전세희	정명자	정용모	정화수	조연준	주미애	차용원	최미경	최옥수
이영기	이은미	이정환	이초복	이효경	임민화	장시설	전선미	정명희	정용준	정화순	조명난	주미정	차윤희	최미선	최옥실
이영란	이은선	이제정	이준실	이훈	임재훈	장애경	전성수	정문용	정운식	정화명	조명란	주민수	차은주	최미숙	최외숙
이영미	이은수	이제통	이준자	이흘구	임정례	장연순	전성해	정미경	정울자	정호민	조명삼	주민호	차종선	최미아	최용희
이영민	이은숙	이종근	이준희	이중근	임정상	장영미	전세진	정미영	정울희	정호선	조명숙	주성업	차진숙	최미영	최운용
이명선	이은실	이종면	이중근	이звон주	임정웅	장영식	전숙현	정미중	정은미	정호순	조명의	주명란	차태숙	최미자	최원국
이영숙	이은명	이종복	이치영	이희경	임정자	장명아	전숙희	정미향	정은숙	정희경	조영자	주명순	차태자	최민정	최원길
이영순	이은목	이종민	이태수	이희숙	임정태	장명숙	전순숙	정민경	정은영	정희선	조명화	주명숙	차밀숙	최민호	최원숙
이영주	이은주	이종석	이필명	이희율	임정한	장목녀	전순주	정방현	정은자	정희운	조명희	주운	차호환	최병구	최원식
이영임	이은희	이종완	이하안	임경옥	임정미	장유진	전명호	정심섭	정민법	조명숙	조운선	주현강	채명란	최병업	최유미
이명자	이은순	이종준	이하평	임계선	임정일	장은숙	전운체	정상금	정인수	조경운	조은기	주현정	채영미	최병철	최율미
이영주	이의진	이종필	이한세	임공숙	임천택	장은영	전은주	정상수	정장한	조경화	조은성	주혜숙	채명준	최복례	최운선
이영철	이인경	이종현	이한순	임국빈	임철순	장은희	전민수	정산숙	정재와	조광식	조은정	주혜령	채명화	최불규	최운선
이영춘	이인규	이종호	이한영	임남세	임준희	장줄순	전민숙	정선령	정재박	조건연	조은진	지명자	채옥진	최봉녀	최운정
이영학	이인기	이종화	이한화	임늘봉	임하준	장민수	전밀상	정선영	정장관	조규미	조은희	지미자	채향식	최봉기	최운호
이영행	이인숙	이종희	이하숙	임동준	임해진	장민준	전정애	정성권	정정순	조기원	조의정	지민주	채현인	최상태	최운희
이명호	이임순	이주라	이해순	임동학	임향순	장임선	전정희	정성심	정정필	조님의	조미복	지선미	천규란	최석주	최은경
이영희	이장희	이주율	이해진	임명실	임한숙	장정숙	전준수	정성자	정정호	조대상	조인동	지선화	천미라	최선경	최은숙
이예리	이재경	이주은	이향귀	임문빈	임현자	장재우	전준식	정성희	정정임	조명자	조인순	지성은	전성수	최선일	최은영
이옥경	이재득	이주장	이향숙	임발경	임향숙	장줄순	전지순	정소미	정주희	조명선	조일간	지성자	천명미	최선주	최은주
이옥규	이재면	이주현	이향유	임병길	임향아	장지분	전지훈	정수영	정지수	조명순	조재순	지소란	천명순	최성미	최인주
이옥기	이재민	이주희	이향자	임병남	임향진	장지운	전철수	정수용	정지영	조명자	조재숙	지영숙	천정순	최성섭	최은호
이옥란	이재서	이준구	이현숙	임병숙	임해경	장자혜	전태언	정수호	정지택	조명희	조절자	지윤수	천현아	최성애	최은화
이옥렬	이재선	이준명	이해령	임병숙	임해경	장진상	전풀열	정숙	정지형	조미애	조정애	지은숙	최갑순	최성용	최은희
이옥선	이재순	이준미	이혁	임병인	임혜경	장진숙	전통자	정숙이	정진아	조미연	조총익	지존식	최경숙	최성인	최인선
이옥희	이재솔	이준석	이정	임병택	임효순	장진순	전현숙	정숙자	정진이	조미창	조주은	지현수	최경순	최성호	최인자
이용길	이재용	이준수	이현숙	임보나	임흘선	장진희	전현철	정숙희	정진호	조미희	조준상	지현관	최경애	최수희	최장미
이용선	이재운	이준제	이현순	임보연	장견	장차수	전행순	정순숙	정찬자	조민수	조진경	지현준	최경숙	최숙희	최재구

최재신	최재식	한재동	출간숙	황상진
최재영	최재향	한정미	홍구양	황선겸
최전민	최태현	한정자	홍글선	황선모
최정미	최한숙	한정희	홍기선	황선웅
최정민	최화남	한종규	홍남표	황소윤
최정순	한경애	한종학	홍대석	황순선
최정식	한경택	한주희	홍도겸	황순마
최정여	한경호	한지마	홍리아	황순하
최정희	한광택	한지연	홍명애	황순희
최장훈	한국일	한지영	홍명준	황영자
최정희	한귀향	한지현	홍상기	황영희
최종칠	한규희	한향임	홍석구	황욱
최종표	한규희	한치화	홍석근	황욱규
최주선	한금옥	한현복	홍선미	황무연
최준오	한기열	한현정	홍선아	황원근
최자연	한기원	한화연	홍선희	황유정
최자원	한길자	한효진	홍성득	황윤겸
최진구	한남옥	한선연	홍성만	황은경
최진숙	한명수	한성열	홍성범	황은미
최진호	한명원	한아름	홍성장	황은숙
최창규	한명희	합정순	홍성현	황은명
최창신	한미선	한정훈	홍선희	황은음
최철	한미정	장지찬	홍소영	황익한
최준단	한미향	합현화	홍순덕	황인서
최태규	한미화	허광자	홍순례	황인옥
최태범	한민자	허금	홍영란	황인준
최태순	한민정	허난영	홍운영	황인환
최태민	한민후	허대훈	홍은영	황체관
최판식	한복경	허립	홍은주	황체원
최한규	한상순	허만정	홍인화	황점숙
최한숙	한상우	허명아	홍재설	황정래
최현정	한상희	허석수	홍점숙	황정순
최현주	한서일	허성복	홍정기	황정연
최형순	한식희	허성숙	홍정화	황주문
최혜란	한성식	허숙자	홍정희	황지원
최혜령	한성진	허순옥	홍출석	황진밀
최혜정	한소련	허양미	홍지연	황찰수
최호영	한솔이	허영례	홍자영	황철함
최홍식	한수교	허용	홍자는	황준옥
최홍식	한수진	허윤석	홍진배	황필연
최화숙	한순이	허인철	홍충한	황현복
최화숙	한신	허재	홍혁표	황현아
추문규	한아름	허재중	홍현아	황현자
추미림	한양미	허점희	홍화엽	황현철
추영신	한연수	허정미	홍화봉	황현준
표기영	한연정	허정은	화상성	황홍주
표명무	한연주	허진아	황규란	황환희
하경리	한연희	허정희	활여진	황효재
하명례	한영란	허준심	황록하	황희정
하미숙	한영숙	현석민	황영분	
하미진	한영자	현은주	황영희	
하복례	한복순	현은화	황미경	
하성미	한웅희	현은희	황병욱	
하숙정	한원선	현정미	황보구영	
하명순	한윤희	현지숙	황보창권	
하목식	한이범	현진민	황봉근	
하윤정	한일안	홍고선	황상순	

일시
후원물품
후원

김삼하	간식4등성당
김세빈	히말아이엔(Here I am)
김숙희	
신기연	
윤정아	
이솔비	
이승원	
이유진	
정채운	
채카타리나	
최성미	
최현준	
제물포성당 청년회	
중2동성당 소년 지혜의샘 브레시디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문사업)	
홍익돈마스 송도점 모금함	

어렵고 힘든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 변함없는 사랑을
나눠주시는 후원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후원회원님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후원회원명:

연락처:

1. 이번 소식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2. 소식지를 통해 특별히 더 만나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3.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 주세요!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9월 25일(금)까지 의견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다섯 분을 뽑아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정된 분께는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이니, 성함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참여방법(이메일)

해당 페이지 의견 작성 → 휴대전화 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 → 사진 첨부 후, 이메일
(sagy03@yism.or.kr) 발송



2020년도 맑은청소년지원금

청소년들에게 한 푹 **춥니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여
보다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합니다.

• 지원금액

최대 3,000,000원 범위 내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분야

재단 회원 청소년(천주교 인천교구 교직 소지 9~24세 청소년)

생계지원금	생계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저소득가정의 청소년
의료지원금	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중이어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배움지원금	배움에 의지가 강한 청소년
자기계발지원금	자기계발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소년

• 신청기간

신청기간	발표일자	지급일자
2020. 7. 1.(수)~2020. 8. 14.(금)	2020. 8.25.(화)	2020. 8.31.(월)

• 신청 및 문의

재단 홈페이지(www.yism.or.kr) 통해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sagy03@yism.or.kr) 제출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사무처 ☎ 032-766-1318, 7942(평일 10:00-18:00)

* 본금 주민등록부님, 수어님, 주말학교 선생님 등의 추천서 제출 필수.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은 1996년 인천교구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교회 안 청소년과 더불어 교회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사회복음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Yism(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